

Marita G. Schmitz

우연이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우주와 당신과
협력하여 조물한 것입니다.

우연이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것은 ♪ 우주가 당신과 함께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고...

...의심조차 못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어나게 돼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어느 순간 직감적으로...

“직관”

“깨달음”

네, ...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 책을 발견하셨다면, 아름다운 우주가 당신이 이

책을 읽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연은 없으니까요!

I.

배제,

나는 친가족이 원하는 모습대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II.

그 책임은 나에게 넘어왔다.

제가 아직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어머니)께서 저보다 두 살 많은 누나를 위해
하신 결정이었습니다.

III.

가족의 문제아

IV.

저는 이중 숫자나 천사 숫자, 수호 동물, 기타 징조와 같은 특별한 숫자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걸까?

동정과 행운의 숫자

집 번호

수호 동물

깃털

V.

우주는 어떻게 당신이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당신의 소명과 인생 계획을 실현하게 하는가.

얻은 경험

당시에는 대부분 임시직 계약이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오늘날에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외국인과의 만남

또는 외국계 부모의 자녀들과의 만남

우연이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것은 **나** 우주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거죠.

(당신 자신도 그 일부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태어날 때 그걸 고려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네, 왜냐하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세상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모든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어요.

당신은 타고난 학습 과제를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가족과 함께 또는 어떤 환경에서 그 과제를 해결할지 스스로 결정했죠.

그게 바로 네가 이 가족에 태어난 이유야.

물론이죠...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요...

...상상조차 못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어나게 돼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어느 순간 직감적으로...

“직관”

“깨달음”

그러면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져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하죠...

...당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의 경험들 말이에요!

I.

배제,

나는 친가족이 원하는 모습대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부모님, 특히 형은 내가 아들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그들을 실망시킨
순간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제 성별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린 시절 몇 년 동안 형은 마치
친동생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말이나 방학
때면 형은 저를 데리고 자연 속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모래밭이나 잔디밭에 앉아 형은 주머니칼로 작은
나뭇가지를 갈고, 우리는 함께 놀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제가
멜빵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형이 갈아주던 나뭇가지를
멜빵 주머니에 꽂았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